

# 교양 <초급중국어> 수업의 작활동·그룹활동 모델 연구\*

고광민\*\*

## <目 次>

1. 들어가며
2. 교양 <초급중국어> 수업의 진입장벽과 작활동 및 그룹활동의 의의
3. 작활동 및 그룹활동 수업 예시
4. 기타 점검 사항
5. 나오며

## 1. 들어가며

중국의 G2 진입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중국어 학습의 수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각 대학에 개설된 중국어 교양 강좌의 수는 영어의 뒤를 쫓고 있고,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고등학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sup>1)</sup> 이제 중국어 학습은 전공 구분 없는 보편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관련 학문을 전공한 필자에게 이러한 현상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한순간의 현상으로 그칠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양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한양대학교 중문과 조교수

1) 2012년 4월1일 기준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화 고등학교)에서 '중국어 I'을 선택한 학교는 791개교이며, '중국어 II'를 선택한 학교는 703개교이다. 이는 2003년 통계인 625개교와 358개교에 비해 각각 27%와 96%의 증가율을 보인다. 신의연, 「중고·대학의 초급 중국어 교육에 관한 고찰-제2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육의 한계」, 《인문학연구》 91권, 2013년, 185쪽.

도 한다. 중국어 학습 열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 내용과 방법이 학습 욕구를 진작시켜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하며, 수시로 보완하고 수정해야 수요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학습이든 입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 배울 때 쉽고 재미있다고 느끼면 계속적으로 학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대학에서는 중국어 비전공자의 입문 과정으로 교양 영역의 초급중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그동안 교양 초급중국어 수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우선, 교육 행정 부분에서는 교양과목의 필수화, 교양 중국어 수업과 중문과 전공자와의 분리 수업, 외국인 교수와의 팀티칭(Team Teaching), 수강 적정 인원 제한 등이 제기되었으며<sup>2)</sup> 수강생의 수준 불균형 문제와 레벨테스트를 통한 분반 수업을 해법으로 제기하기도 하였다.<sup>3)</sup> 이와 같은 교육 행정의 문제는 각 학교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관장학과와 대학 측의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육 내용이다. 表意文字인 중국어의 특성상, 한자 학습이 필요하며 거기에 발음 이외에 성조까지 익혀야 한다. 또한 발음과 성조를 숙

- 
- 2) 정진강은 교양중국어 수업의 필수과목으로의 전환, 레벨테스트를 거친 20명 수준의 분반, 외국인 교수와 내국인 교수의 Co-teaching 활성화, 초급·중급·고급이 연계된 교육과정 등을 제시했고, 장춘석은 교양중국어 수업과 중문학 전공자와의 분리 수업, 교양 중국어 담당 교강사들의 워크숍을 통한 점검 등을 제시했다. 정진강, <대학 교양중국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1)>,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7집, 2005년 7월, 348-349쪽. 정진강, <대학 교양중국어 교수·학습의 활성화 방안>,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7집, 2006년 1월, 276-278쪽. 장춘석, <교양 중국어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34집, 2006년 12월, 206-208쪽.
- 3) 교양중국어 수강생의 극심한 수준 차는 현재 각 대학이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이다. 김은희는 J대학 교양중국어 수강생 126명을 대상으로 중국 방문 및 체류 경험을 물었다. 그 결과 경험은 있는 학생은 29.4%였고, 그중 56.8%는 유학이나 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자는 H대학 <초급중국어1> 수강생 99명을 대상으로 <초급중국어1>을 수강하기 전에 중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무려 4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학생이 74%, 학원 등 기타 장소에서 배운 학생이 26%로 나타났다. 학습 기간은 1년 이상이 78%, 1년 미만은 22%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교양중국어 수강생의 극심한 수준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은희, <교양 중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 태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46집, 2010년 2월, 186쪽.

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처럼 타 언어에 비해 익혀야 할 것이 많고 긴 학습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중국어를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sup>4)</sup>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학습 내용을 선택하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활용하여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수년간 교양 <초급중국어>를 강의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 포기하는 것을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보았지만 대부분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했다.<sup>5)</sup> 이처럼 초급 수준의 중국어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아마도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초급 수준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sup>6)</sup> 하지만 학습 수준이 '초급'이라고 해서 교수 방법도 '초급'일 수는 없다. 초급일수록 학생들의 열의가 쉽게 식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의 경험과 교수법 관련 자료를 근거하여, 중국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작활동과 그룹활동을 제안하며, 이를 활용한 교수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학습

4) H대학의 경우 매년 교양 과정에 개설되는 <초급중국어1> 수업은 약 12개 정도이지만, 이와 연계된 <초급중국어2> 수업은 1-2개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13년 2학기 H대학 <초급중국어1>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급중국어2> 수강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4%(그렇다 17%, 매우 그렇다 7%)의 응답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보면 상위 학습으로의 연계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엄익상의 《중국어 교육론》 제3장 [발음지도] 에는, [분절 자질 지도], [분절 자질 지도] 등 주로 발음 교육의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발음 교정과 방법]에서도 [발음 모방법], [과장법], [시연법], [최소변별쌍(minimal pair)] 등의 발음지도도 간략히 언급할 뿐 구체적이고 상세한 발음지도와 교정의 방법은 생략하고 있다. 이에 비해 《효과적인 중국어 교수법》은 교수의 순서를 [발음제시단계]-[발음지도방법단계]-[실제발음지도단계]-[발음교정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발음과 성조 지도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제기한 [성모판별하기], [운모판별하기], [4성읽기], [성조결합연습] 등은 실제 수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엄익상의, 《중국어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1년, 89-126쪽, 이해임 편저, 《효과적인 중국어교수법》, 성남, 북코리아, 2012년, 31-59쪽.

6)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알면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중국어 교수법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어 교수법 개발을 강조하였다. 신의연의 논문 199쪽.

의 범위는 발음과 성조를 위주로 하고 거기에 받아쓰기 능력, 어휘 치환 훈련 등 초급 수준에 학습해야 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진입장벽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그 해결책으로서의 짝활동과 그룹활동의 의의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짝활동과 그룹활동을 활용한 수업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수업 운영에 있어서 점검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다. 중국어 교육관련 연구는 ‘이론’과 ‘실제’의 양방향성이 모두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론’은 중시되고 ‘실제’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의 본 논문은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되어 실제 <초급중국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수법이 수업시간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중국어 교수법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를 바란다.

## 2. 교양 <초급중국어> 수업의 진입장벽과 짝활동 및 그룹활동의 의의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초급자가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필자는 2013년 2학기 H대학 교양 <초급중국어1>을 수강한 9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내용 중에 ‘중국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라고 질문하고, 이에 몇 개의 항목을 설정하여 각각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자	3	12	20	28	36
성조	6	13	17	38	25
발음	7	19	34	29	10

위의 항목에서 성조는 발음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일반 학습자에게 있어서 발

음과 성조는 서로 구별되는 학습 영역이다. 실제로 성조는 잘하지만 발음을 못하는 학생이 있으며, 발음은 정확하지만 성조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가 한자(약 64%), 성조(약 63%), 발음(약 39%)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 중에는 초급자(52명)와 3개월 이상 학습한 기학습자(47명)가 섞여 있어 이를 구분해 보면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다. 초급자의 경우 어려움의 정도가 성조(80%), 한자(67%), 발음(51%)으로 나타났고, 기학습자의 경우는 한자(61%), 성조(44%), 발음(25%)으로 나타났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두 집단 모두 성조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급자는 성조를 매우 어렵게 여기고 있으며(80%) 그 정도는 발음에 비해 월등히 앞선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정 기간의 연습을 거치면 그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4%). 설문조사에서는 위에 제시한 항목 이외에 중국어 학습이 어렵게 느껴지는 항목을 주관식으로 쓰게 했으나 특별한 응답은 없었다. 때문에 초급자가 느끼는 중국어 진입장벽의 어려움은 성조, 한자, 발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진입장벽의 해법을 하나씩 찾아보기로 하자. 우선 한자의 장벽이다. 한자 학습의 요구가 강조되면서 대학 입학 이전에 한자를 배운 학생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학생들이 배운 漢字는 정체자正體字(繁體字)임에 반해,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간체자簡體字로 서로 형태가 다르다. 비록 서로 유사한 형태라 하더라도 알아보기 힘들어 간체자簡體字를 새롭게 공부해야 한다. 초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조와 발음을 배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한자(簡體字)까지 학습하자니 학습의 부담이 가중된다. 최근 출판된 중국어 교재들을 보면 앞 단원에는 한어병음만 표시하고 한자를 생략하다가, 단원 후반부에 한자와 한어병음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처음에 성조와 발음 연습에 집중하게 하고 점차 한자 학습을 병행하도록 하는 의도로 보인다.<sup>7)</sup> 위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한자에 대한 초급자와 기학습자 사이에 어려움의 정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근거해 본다면 한자

7) 송원찬 등이 편찬한 《한자 없는 중국어》는 말문이 트이는데 문자가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문에 한자 없이 한어병음만으로 교재를 편집하였다. 송원찬 등 《한자 없는 중국어》, 서울, 차이나하우스, 2008년.

학습은 초급단계에서 마스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교수는 한자 학습의 분량과 난이도를 조절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자 학습의 부분은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이 아니므로 진일보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은 성조와 발음이다. 초급 중국어의 진입장벽의 핵심은 바로 성조와 발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 학습은 교수의 재량껏 분량과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성조와 발음은 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것이 숙달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위의 설문 결과에서, 초학자의 경우 발음(51%)보다 성조(80%)를 더 어렵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한국어에 없는 중국어의 捲舌音(ch,sh,zh,r)과 舌齒音(c,s,z)은 일정 기간을 거치면 숙달할 수 있지만 성조는 그렇지 않다. 비성조언어 국가 출신의 학습자는 성조를 매우 어려워하며 심지어 중국인들도 정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는데 곤란을 느끼기도 한다. 성조는 4개이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글자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tiān cháng dì jiǔ(天長地久)'처럼 여러 개의 성조조합으로 이루어진 어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분별하기 쉽지 않다. 설사 성조만을 정확하게 발화할 수 있다 해도, 'gōng xǐ fā cái(恭喜發財)'의 형태처럼 성조에 발음이 합해지면 이를 읽거나 듣고 분별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한 학기 동안 성조와 발음만을 연습하면 지루할 뿐만 아니라 교재의 진도를 나가기 힘들다. 또한 시험을 위해 진도를 맞추다보면 성조와 발음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어 숙달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결국, 성조와 발음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는 학습의 중도포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법은 없을까? 우선 발음과 성조 교육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발음과 성조 교육의 핵심은 '흥미'로운 수업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sup>8)</sup> 정확성을 위해서

8) 발음 학습은 중국어 학습 가운데 첫 번째 단계로 이때 습득한 발음의 정확성은 학습 성패를 좌우한다. 이는 중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미 모국어의 발음 습관이 형성된 성인 학습자가 중국어 발음을 제대로 익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미있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의 중국어 발음에 대한 흥미를 높여줌으로써 힘겹고 지루한 수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임

는 오랜 기간의 반복 연습이 필요하지만, 반복을 지속하다보면 흥미가 떨어져 학습을 포기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본문 강의 이전에 지나친 발음 연습을 자제하고 본문 강의에서 발음 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sup>9)</sup> 지루할 수 있는 반복 연습을 보다 재미있게 진행하여 ‘흥미’와 ‘숙달’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초급중국어 교수 방법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학습 형태를 살펴보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학습은 크게 [제시단계], [숙달단계], [점검 및 수정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시단계]에서는 교수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이 몇 번 따라하는 단계이다. [숙달단계]는 [제시단계]에서 배운 것을 연습하는 단계이며 학생들의 반복 연습이 주된 내용이 된다. 마지막으로 [점검 및 수정단계]는 학생들이 연습한 것을 교수가 점검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단계이다. 수업 환경에 따라 교수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세 단계의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교수법은 청화식 교수법(The Audiolingual Method)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청화식 교수법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언어를 일련의 규칙으로 인식한다. 교수는 시중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목표언어의 모델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교수의 통제에 따라 반복, 대치, 재진술, 확장, 축약, 변형 등의 연습을 실시한다. 이때 학생은 자극에 반응하는 반동적(reactive)인 역할만 수행한다. 일반적인 학습의 패턴은 대화로 이루어진 문장을 교수가 읽거나 테이프를 들려주고 학생들이 듣고 따라 읽게 하며 학생들의 오류를 교수는 즉각적으로 수정해준다.<sup>10)</sup>

그러나 위와 같은 교수법은 몇 가지 이유에서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우선, 시중 ‘교수 시범 對 학생 모방’의 단순한 패턴으로 기계적인 반복 학습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비록 교수 음성 대신 음성파일이나 동영상을 사용하여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교수 시범’과 ‘학생 모방’의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학생은 교수의 통제 하에 피동적인 역할만을 한다는 점이다. 피동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의 책, 58쪽.

9) 엄익상의 책, 126쪽.

10) 김남국 편저 〈외국어교수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12년, 59-63쪽.

숙달 과정 속에서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학습 과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흥미가 제고될 수 있을까? 위에 제시한 세 단계 중에서 [제시단계]와 [점점 및 수정단계]는 시범과 오류의 수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교수가 이끌고 학생이 따라오는 형식이어야 한다. 하지만 [숙달 단계]에서는 반드시 교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숙달단계]에서 [교수 對 학생]의 기계적 반복 학습을 [학생 對 학생]의 유기적인 연습으로 전환한다면 교수 방법의 단순한 패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또한 학생 상호 간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통해 시중 피동적인 학생들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 간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짝활동과 그룹활동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모둠활동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협동학습 교수법에서 활용하고 있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협동학습 접근방법(Cooperative Language Learning: CLL)은 주로 짝이나 소집단의 협동활동을 이용하는 교수 접근 방법으로 협동 학습(Collaborative Learning: CL)이라고 알려진 더 일반적인 교수 접근 방법의 한 부분이다. 또한 제2언어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협동학습 접근방법은 교실에서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의사소통중심의 접근 방법 원리의 확장으로도 보고 있다.<sup>11)</sup> 협동학습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며 구성원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동학습은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2언어 연습의 빈출도와 다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학생들 서로를 학습의 자원(resources)으로 활용하면서 학습 욕구를 자극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며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sup>12)</sup> 실제로 협동학습을 통해 의사소통의 신장, 학습 동기의 자극, 교유 관계의 개선, 생동감 있는 수업 분위기 조성 등 구체적인 결과를 발생하였고,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제고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sup>13)</sup>

11) Jack C. Richards & Theodore S. Rodgers 지음, 전병만 외 옮김 《외국어 교육 접근 방법과 교수법》, 서울, CAMBRIDGE, 2008년, 295쪽.

12) 《외국어 교육 접근 방법과 교수법》, 300쪽.

13) 김재희는 협동학습을 일반 고등학교 중국어 수업 8차시에 적용한 결과 모둠별로 진행한 수행평가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수행평가보다 평균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

이처럼 짝활동과 그룹활동의 협동학습은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초급중국어 발음과 성조의 [숙달과정]에 활용한다면 '흥미'와 '숙달'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짝활동 및 그룹활동 수업 예시

여기에서는 <초급중국어> 수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 순서는 성조를 먼저 연습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발음을 연습한다. 이는 성조와 발음을 동시에 학습했을 때 발생하는 학생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초급자들의 성조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성조와 발음 연습은 난이도에 따라 각각 [정확도 연습], [속도 연습], [치환 연습]의 세단계로 구분한다. [정확도 연습]은 성조와 발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단계이다. [속도 연습]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기초 위에, 읽는 순서에 변화를 주거나 속도를 빠르게 하여 응용력을 키우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치환 연습]은 고정적인 연습의 틀에서 벗어나 제시된 성조를 발음하거나 성조를 듣고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고, 단어를 듣고 뜻을 맞추거나 뜻을 제시하고 단어를 말하는 치환 능력을 키우는 단계이다. 각각의 연습은 다시 [제시단계], [숙달단계], [점검 및 수정단계]의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습 내용	단계
성조	① 정확도 연습	[제시단계], [숙달단계], [점검 및 수정단계]
	② 속 도 연습	[제시단계], [숙달단계], [점검 및 수정단계]
	③ 치 환 연습	[제시단계], [숙달단계], [점검 및 수정단계]
발음	④ 정확도 연습	[제시단계], [숙달단계], [점검 및 수정단계]
	⑤ 속 도 연습	[제시단계], [숙달단계], [점검 및 수정단계]
	⑥ 치 환 연습	[제시단계], [숙달단계], [점검 및 수정단계]

다. 김재희, 《소집단 협동학습 방법을 적용한 중국어 수업모형 연구》,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년, 58-59쪽.

학습의 순서는 ①부터 ⑥으로 진행하며, 각 단계의 숙달 시간을 충분히 가져 학생들의 학습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 1) 성조 연습

### (1) 정확도 연습

#### ① 제시단계

제시단계는 교수의 시범과 학생의 따라 읽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교수는 ma의 발음으로 1성부터 경성까지 읽어주고 특징을 설명하며 따라 읽게 한다. 그런 다음, 성조를 두 개씩 조합하여 성조 연습을 진행한다. 훈련 순서는 아래의 표를 근거로 한다.

1성 조합	2성 조합	3성 조합	4성 조합
māmā	mámā	māmā	māmā
māmá	mámá	mámá	mámá
māmǎ	mámǎ	māmǎ	māmǎ
māmà	mámà	māmà	māmà
māma	máma	māma	māma

【표1】

교수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1성 조합 5개를 ma의 발음으로 연습시킨다. 교수가 읽고 학생들이 따라 읽게 한 후, 어느 정도 숙달되었다고 판단되면 2성으로 시작되는 다섯 개 조합을 다시 연습한다. 교수는 칠판에 성조만 표기하여 판서하거나 위의 도표를 출력하여 나누어 준다. 다만 매 수업시간마다 칠판에 학습할 성조를 판서하는 것이 학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이다.

#### ② 숙달단계 (짙활동)

숙달 연습은 교수가 시범 보였던 10개의 성조 조합을 2인 1조(같은 조에 속한

2인)로 연습한다. 2인은 번갈아가며 하나씩 읽게 하고( 짝1이 먼저 읽고 짝2가 나중에 읽는 형식), 다 읽은 후에는 순서를 바꿔( 짝2→ 짝1) 읽게 한다. 이것이 끝나면 동일한 순서로 두 개씩 읽기(māmā, māmá → māmǎ, māmà)를 시킨다. 연습시간은 대략 3분 이내로 한다.

### ③ 점검 및 수정단계

점검 및 수정단계는 교수가 학생을 지명하고 학생이 발표하는 형식이다. 짝활동이 끝나면 교수는 각 조의 조장부터 읽게 한다. 1조 조장은 [māmā], 2조 조장은 [māmá]의 순으로 읽게 한다. 5명의 조장이 모두 다 읽었으면, 그 다음 차례는 조장 오른쪽에 앉은 학생으로 정하고 계속해서 1조는 [māmā] 2조는 [māmá]의 순으로 읽게 한다.<sup>14)</sup> 조원 전원을 점검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므로 각조의 2~3명을 점검하고 마치도록 한다.

1성 조합과 2성 조합의 연습이 끝나면 3성 조합과 4성 조합 역시 [제시]-[숙달]-[점검과 수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3성 조합과 4성 조합은 1성 조합과 2성 조합에 비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연습시간이 필요하다. 4성 조합까지 연습을 마치면 학습 범위를 1성 조합부터 4성 조합까지로 확대하여, [제시]-[숙달]-[점검과 수정]을 진행한다. 다만, 학생들의 습득 속도가 느리면 학습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일한 범위를 연습해야 한다.

## (2) 속도 연습

### ① 제시단계

읽고 따라하는 형식은 동일하다. 교수는 【표1】을 근거하되 읽는 순서에 다양한 변화를 준다. 예를 들어, 가로방향으로 읽기([māmā]→[māmá]→[māmǎ]), 거

14) 일명 '번호순으로(Number Heads Together)'라는 협동학습구조에서는 각 조원에게 고유 번호를 정해주고 교수가 임의로 번호를 지목하면 각 조 해당 번호의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를 취한다. 점검과 수정 단계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조원의 번호를 정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다. 정문성,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6년, 330쪽.

꾸로 읽기([màma]→[màmà]→[māmǎ]), 右에서 左방향으로 읽기([màmā]→[ǎmāmā]→[mámā]) 등을 한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고 판단되면 [māmā], [mámā] → [māmǎ], [māmá]처럼 두 개씩 읽는 것으로 변화를 준다.

② 숙달단계 (짹활동 및 그룹활동)

위에서 교수가 제시한 읽기 방법을 짹활동을 통해 연습한다. 짹활동이 끝나면 그룹활동을 진행한다. 방법은 조장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씩 읽어 가는 형식을 취한다.

③ 점검 및 수정단계

점검 및 수정은 위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다.

(3) 치환 연습

여기의 치환 연습은 ‘보고 읽기’와 ‘듣고 맞추기’의 두 단계로 나누어 연습한다.

① ‘보고 읽기’ 제시단계

교수는 임의로 하나의 성조 조합을 가리키고 학생들이 읽게 한다. 학생들은 순서대로 읽는 연습만 했기 때문에 무작위로 지목하는 성조를 읽기 힘들어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읽지 못하면 교수가 읽어주고 따라 읽게 한다. 위의 방법을 몇 차례 시행한다.

② ‘보고 읽기’ 숙달단계 (짹활동)

짝1이 성조를 제시하고 짝2가 해당 성조를 발음하는 연습을 한다.<sup>15)</sup> 1분 동안

15) 이는 협동 학습의 ‘플래시 카드(Flashcard Game)’의 문제를 내고 푸는 형식의 짹활동을 변형한 것이다. 플래시는 불이 번쩍하면서 터지는 사진기가 연상되며 번쩍이는 충격이 상당히 오래 동안 기억에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방식이다. 짹활동으로 진행되며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앞에는 문제, 뒤에는 힌트와 정답이 있다. 정문성의 책, 331쪽.

짝1이 짝2에게 구두로 [1성+2성], [3성+4성] 등을 제시하고 짝2는 이에 대해 해당 성조를 읽게 한다. 학생들이 【표1】을 보지 않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1분이 지나면 교수는 연습 종료를 알리고, 순서를 바꿔 짝2가 성조를 제시하고 짝1이 대답하는 연습을 진행한다. 이때 교수는 각 조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어떤 성조를 어려워하는지 파악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수정해 준다.

### ③ '보고 읽기' 점검 및 수정단계

점검 방식은 위와 동일하게 우선 각 조장을 지목하고 점검한다. 1조 조장이 2조 조장에게 2개의 성조를 제시하고 2조 조장이 읽도록 한다. 2조 조장의 대답이 끝나면, 2조 조장이 3조 조장에게 문제를 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때에도 역시 교수는 학생이 틀리면 수정해주고, 학생 전체에게 틀리기 쉬운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해준다.

### ④ '듣고 맞추기' 제시단계

치환 두 번째는 성조를 듣고 맞추는 것이다. 교수는 20개 성조 조합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읽는다. 예를 들어 máma를 읽어 주고 이것이 몇 성과 몇 성인지 맞추도록 한다. 이때는 주로 유사한 성조의 차이점을 익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máma]와 [mǎma], [mǎma]와 [māmá]처럼 혼동하기 쉬운 성조 조합을 읽어주고 맞추도록 한다.

### ⑤ '듣고 맞추기' 숙달단계(짝활동)/점검 및 수정단계

짝활동을 통한 [숙달단계]와 [점검 및 수정단계]의 형식은 [보고 읽기]와 동일하다.

[정확도 연습], [속도 연습], [치환 연습] 이 끝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조에 숙달되면 성조 연습을 마무리 한다.

## 2) 발음 연습

발음 연습을 위해서는 아래의 【표2】가 필요하다. 【표2】는 성조 연습에 사용했던 【표1】의 20개 성조 조합에 부합하는 단어를 한어병음만 적은 것이다. 총 80개 단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초급 수준의 활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숙달된 성조의 기초위에 발음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fēiji chūnjié gāngbǐ shēngdiào bōli	guójiā yínháng niú'nǎi xuéxiào péngyou	běijing zǔguó xí'zǎo qǐngwèn zǎoshang	miànbāo wèntí xià'yǔ zàijiàn màozi
xīguā jiā'yóu shēntǐ jìdàn duōshǎo	liáotiān tóngxué píjiǔ báicài pútáo	dǎzhēn jiǎnchá shǒubiǎo bǐsài yízi	jiànkāng bàngqiú wòshǒu xiànzài wàzi
chōuyān shēnghuó gōngxǐ zhìdào yífu	lóuti yóujú yáchǐ chéngshì mántou	huǒchē cǎoméi shuǐguǒ gǎnmào mǔqīn	qìchē tèbié ditie shàngkè dùzi
xiāngjiāo xinwén hēibǎn yīyuàn xíuxi	shìjiān tóuténg rénkǒu suǐbiàn piányi	měitiān zǒuláng lǎobǎn kǎoshì xǐhuan	xiàbǎn wèilái hànyǔ zhàoxiàng xièxie

【표2】

(1) 정확도 연습

정확도 연습은 80개 단어를 정확하게 읽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제시단계

위의 【표2】를 출력하여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표2】의 각 칸을 A4 크기로 출력하고 번호를 매긴 【발음연습판】을 만든다면 그룹 활동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feiji chūnjié gāngbǐ shēngdiào bōli 1	guójiā yínháng niúnǎi xuéxiào péngyou 2	běijīng zǔguó xǐzǎo qīngwèn zǎoshang 3	miànbāo wèntí xiàyǔ zàijiàn màozi 4
--	--	---	--

【발음 연습판 예시】

교수는 우선 1번 【발음 연습판(이하 연습판)】을 들고 하나씩 읽어주고 따라하게 한다. 몇 번 반복한 후 익숙해졌다고 판단되면 같은 방법으로 2번, 3번, 4번, 5번 【연습판】까지 읽고 따라하게 한다. 총 5조가 있다면 5번까지 읽어준다. 단어를 읽어주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간략히 설명한다. 발음 설명이 너무 길면 지루해질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 하고 매번 발음 연습을 할 때 중복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속달단계 (그룹활동)

발음의 제시와 연습이 끝나면 교수는 【연습판】을 각각의 조에 하나씩 나눠준다. 이때 1번은 1조에게 주고 2번은 2조에게 준다. 연습방법은 조장부터 시작해서 연습판을 옆에 들고 학생들과 자신이 함께 보면서 단어 하나씩 읽고 조원이 따라하도록 한다. 조장이 읽고 조원이 따라하는 연습이 끝나면, 【연습판】을 조장 오른쪽에 앉은 학생에게 돌려 다시 동일하게 연습한다. 교수가 읽고 따라할 때와는 달리, 학생들끼리 읽고 따라하는 과정 속에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는 이를 관찰하여 오류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수정해 준다. 초급자와 기 학습자가 섞여 있는 현재의 학습 상황 속에서 이러한 그룹활동을 통해 기 학습자들이 초급자들의 발음 교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sup>16)</sup> 연습을 마치면 교수는 연습 종료를

알리고 【연습관】을 다른 조에게 돌리게 한다. 이때 1조는 2조에게, 2조는 3조에게 돌리고 새로운 【연습관】을 가지고 동일하게 연습을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1조가 5번 【연습관】까지 연습을 마치면 그룹 활동을 끝낸다.

### ③ 점검 및 수정단계

교수는 5개의 연습관을 모두 수거하고 1번 【연습관】을 들고 1조의 조장을 지목한다. 1조의 조장이 1번 【연습관】의 단어를 하나씩 읽고 전체 학생들이 따라하게 한다. 이때 발음과 성조를 잘못 읽으면 수정해준다. 1조 조장의 읽기가 끝나면, 2번 【연습관】은 2조 조장, 3번 【연습관】은 3조 조장을 지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점검한다. 이때, 수정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고 한 번에 완벽하게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향후 계속 되는 연습 시간에 점차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번의 수업에 약 5개의 연습관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 다음시간에는 다시 6번부터 10번, 이런 식으로 연습 범위를 확대한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숙달 되었다면 한 번의 연습에 【연습관】모두를 사용한다. 제시 단계에서 총 16개 【연습관】을 교수가 읽고 학생이 따라 읽기를 마친 후, 16개 【연습관】을 무작위로 5개 조에 배분한다. 각조는 약 3~4개의 【연습관】을 가지고 읽고 따라하는 연습을 한다. 한 조에서 3~4개의 【연습관】연습이 끝나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음 조에게 넘기고 다시 연습하도록 한다. 연습이 모두 종료되면 16개의 판을 모두 수거하여 1번부터 들고 학생들을 지목하여 점검한다. 학생을 지목할 때에는 조장을 기준으로 조장의 오른쪽에 앉은 학생부터 읽게 하되, 매번 비슷한 학생들이 지목되는 경우, 조장의 왼쪽 혹은 조장의 왼쪽 방향 두 번째 학생부터 시작하는 등 변화를 줄 수 있다.

## (2) 속도 연습

- 16)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의 문제점으로 부익부 현상, 무임승객 효과,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의 자아 존중감 감소, 집단간 편파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발음 연습을 위한 그룹활동 중에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동일하며 또한 그룹활동의 내용이 성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희창, 〈교양 중국어 교과의 협동 학습 활용에 관하여〉, 《중국언어연구》 36집, 2011년 8월, 8쪽.

속도연습 단계에서는 【연습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80개 단어를 A4 형식에 맞게 출력한 【표2】를 활용한다. 【표2】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매 번 수업시간에 지참하도록 한다.

### ① 제시단계

처음에는 80개의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가 읽고 학생들이 따라하게 한다. 읽고 따라 하기를 2번 정도 반복한다(약 5분 소요).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제는 점차 변화를 준다, 예를 들어, 가로 읽기(feiji → guójia → běijīng), 右에서 左로 읽기(miànbāo → běijīng → guójia), 거꾸로 읽기(xièxie → zhàoxiàng → hànǚ) 등으로 응용한다. 또한 어느 정도 숙달되면 교수의 읽기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전체가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한다. 하나씩 번갈아가며 읽기가 숙달되면 2개씩 번갈아 가며 읽게 한다. 응용단계의 핵심은 정확한 발음과 성조의 기초 위에서 읽는 순서와 시간에 변화를 주어 숙달을 가속화하는 것이므로 단어 읽는 속도를 기본연습 때보다 빨리할 필요가 있다.

### ② 숙달단계 (짝활동)

2명씩 짝을 지어 연습한다. [ 짝1 → 짝2 ] 순으로 각각 하나씩 80개 단어를 읽는다. 1회 읽기를 마무리하면 이번에는 [ 짝2 → 짝1 ] 순으로 읽게 한다. 숙달 정도에 따라 [가로 읽기], [右에서 左로 읽기], [거꾸로 읽기], [두개씩 읽기] 등을 응용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이때 짝활동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짝활동 시간은 3분 전후로 한다. 80개 단어를 천천히 읽었을 때 약 1분 30초의 시간이 소요되어 2인이 읽을 경우 3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번 짝 읽으면 6분이 소요되어 지루해질 수 있다.

### ③ 점검 및 수정단계

점검하는 방법은 1조 1인과 2조 1인을 지목하여 두 학생에게 번갈아가며 읽기를 시킨다. 이것이 끝나면 3조 1인과 4조 1인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읽기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점검하고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읽기 방법을 선택하여 동일하게 점검한다. 이때, 2인이 읽는 단어는 20개가 적당하다. 학생들이 잘못 읽었을 경우, 바로 지적하여 수정하지 말고 읽기를 마친 후에 수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치환 연습

이 단계는 ‘듣고 쓰기’ 연습과 ‘한국어→중국어’의 상호 치환 연습으로 구성된다.

#### ① ‘듣고 쓰기’ 제시단계

교수는 80개 단어 중에 5개를 골라 천천히 몇 번 읽어주고 학생들이 받아쓰기를 하도록 한다. 쓰기를 마치면 교수가 읽어 준 5개 단어의 한어병음을 칠판에 하나씩 쓰면서 설명하고 주의할 점을 알려준다.

#### ② ‘듣고 쓰기’ 숙달단계 (짝활동)

짝활동으로 받아쓰기를 연습하도록 한다. 2인이 한 번씩 5개의 단어를 읽어주고 받아쓰게 한 후, 정답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읽어주는 학생은 천천히 몇 번씩 읽어 쓸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한다. 단어를 읽어주는 학생은 받아쓰는 학생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실수나 착오를 보면서 자신의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때 교수는 짝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은 체크한다.

#### ③ ‘듣고 쓰기’ 점검 및 수정단계

짝활동이 마무리 되면, 교수는 틀리기 쉬운 오답 위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jǎizàn이나 kǎoméi 같은 오류는 zǎijiàn과 cǎoméi로 수정해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한다. 듣고 쓰기의 경우 특히 더 쉽게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매번 수업시간에 한 번씩 연습하고 수정하도록 한다.

## ④ '한국어 ↔ 중국어'의 상호 치환 제시단계

이 단계에서는 【표2】에 단어의 뜻을 추가한 【표3】을 근거로 연습한다.

fēijī chūnjíe gāngbǐ shēngdiào bōli	비행기 구정 펜, 만연필 성조 유리	chōuyān shēnghuó gōngxí zhidào yifu	담배피다 생활 축하하다 알다 옷
guójiā yínháng niúǎi xuéxiào péngyou	국가 은행 우유 학교 친구	lóuti yóujú yáochí chéngshi mántou	계단 우체국 치아 도시 전빵
běijīng zǔguó xízào qīngwèn zǎoshang	북경 조국 목욕하다 물겠습니다 아침	huǒchē cǎoméi shuǐguǒ gǎnmào mǔqīn	기차 딸기 과일 감기 어머니
miànbāo wèntí xiàoyú zàijiàn màozi	빵 문제 비오다 다시보자 모자	qìchē tèbié dìtie shàngkè dùzi	자동차 특별하다 지하철 수업하다 배
xīguā jiāyóu shēntǐ jìcǎn duōshǎo	수박 기름넣다 몸 계란 얼마	xiāngjiāo xīnwén hēibǎn yīyuàn xiúxi	바나나 뉴스 칩판 병원 휴식하다
liáotiān tóngxué píjiǔ báicài pútáo	한담閑談하다 학우 맥주 배추 포도	shíjiān tóuténg rénkǒu sulbiàn piányi	시간 머리 아프다 인구 좋을 대로 (가격이)싸다
dǎzhēn jiǎnchá shǒubǐào bǐsài yīzi	주사 놓다 검사하다 손목시계 시험(하다) 의자	měitiān zǒuláng lǎobǎn kǎoshì xǐhuan	매일 복도 사장 시험(보다) 좋아하다
jiànkāng bànggiú wòshǒu xiànzài wàzi	건강(하다) 야구 약수하다 지금 양말	xiàbān wèilái hànyǔ zhàoxiàng xièxie	퇴근하다 미래 중국어 사진(찍다) 감사합니다

【표3】

【표3】은 80개 단어 한어병음에 뜻을 기입한 것이다. 교수가 80개 단어를 읽고 학생들이 따라하면서 중간에 몇 개 단어의 뜻을 조금씩 알려준다. 예를 들어 'feiji'의 경우 'fei'는 '날다', 'ji'는 '기계', 그래서 '나는 기계, 즉 비행기'라고 설명하고 이와 연관된 응용단어인 'feilái(날아오다)', 'feiqù(날아가다)' 등을 설명한다. 단어 설명이 길어지면 학습 분위기가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매번 80개 단어를 읽고 따라할 때, 약 10개 단어를 대상으로 뜻과 응용 단어를 설명한다. 80개 단어의 의미와 응용 단어의 설명을 다 마치고 나면 【표3】을 A4 크기로 출력하여 나누어 준다. 【표3】을 보고 '교수가 중국어로 읽고 학생이 따라 읽는 형식'으로 진행하다가 가끔 변화를 주어 중국어로 읽고 학생들이 뜻을 답하게 하거나, 한국어의 뜻을 제시하고 학생이 중국어로 답하는 형식을 삽입한다.

#### ⑤ '한국어 ↔ 중국어'의 상호치환 숙달단계(짝활동)

짝활동은 두 분야로 나뉜다. 먼저 [중국어로 읽어 주고 뜻 맞추기]이다. 약 30초의 시간을 주고 짝1이 중국어로 단어를 읽어주고 짝2가 뜻을 맞추는 연습이다. 30초가 지나면 역할을 바꿔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때 처음부터 학생들이 80개 단어를 맞추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단어의 범위를 처음 20개로 한정하고 나중에 점차 40개, 60개, 80개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뜻을 불러주고 중국어로 맞추기]이다. 이는 전자에 비해 더 어렵기 때문에 전자를 충분히 연습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이 역시 연습 범위를 점차 넓혀가며 연습을 진행한다.

#### ⑥ '한국어 ↔ 중국어'의 상호치환 점검 및 수정단계

짝활동이 마무리 되면, 1조 1인과 2조 1인을 선발하여 시간을 정해주고 서로 [중국어로 읽어 주고 뜻 맞추기]를 한다. 5조까지의 점검이 모두 끝나면 다시 1조의 1인과 2조의 1인을 선발하여 다시 [뜻을 말하고 중국어로 맞추기]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때 이것을 조별 경쟁 게임의 형식으로 진행해도 좋다. 각 조에서 한명씩 총 5명을 지정하고 맞추는 시간을 30초로 정한다. 또 다른 학생 1인을 지목하여 무작위로 문제를 내게 한다. 총 5명의 학생이 주어진 시간에 몇

개를 맞추는지 따져 등수를 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80개의 단어를 매번의 수업에서 약 10회(교수 5~6회, 짝 활동 및 그룹활동 5~6회) 이상 읽게 된다.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인 경우, 한 달에 80회, 한 학기에 약 300회 이상을 반복하게 됨으로 단어의 뜻과 응용단어는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많게는 200개 이상의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되므로 중국어 기초 수준의 어휘는 습득했다고 할 수 있다.

## 4. 기타 점검 사항

짝활동과 그룹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연관된 다양한 항목들을 점검해야 한다.

### 1) 수업의 목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초급중국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성조와 발음의 숙달이다. 하지만 이는 좁은 의미에서의 보고 읽는 수준이 아니며 성조와 발음을 듣고 분별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한다.<sup>17)</sup>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목표	보고 읽기	듣고 쓰기
성조	① 보고 정확하게 읽기	② 듣고 분별하기
발음	③ 보고 정확하게 읽기	④ 듣고 한어병음으로 쓰기

성조와 발음은 크게 ‘보고 읽기’와 ‘듣고 쓰기’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성조와 발

17) 《효과적인 중국어 교수법》의 발음지도 내용으로 [모방연습], [보고읽기], [성조연습], [듣고관별하기], [보고쓰기]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훈련은 크게 [보고읽기]와 [듣고관별하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의 목표를 이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임혜임 편저, 《효과적인 중국어 교수법》, 44-58쪽.

음으로 구분하면 4개의 학습 영역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성조의 경우, [보고 읽기]는 하나의 성조뿐만 아니라 māmamāmā, māmāmā(媽媽罵馬, 馬罵媽媽: 엄마는 말을 욕하고, 말은 엄마를 욕한다)와 같은 여러 개의 성조 조합을 보고 읽는 능력을 말한다. [듣고 쓰기]는 위의 예문을 읽어 주었을 때, 총 8개의 성조를 분별하여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발음의 경우, [보고 읽기]는 kǎoshì와 같은 단어를 제시했을 때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기본 수준으로 하며, 더 나아가 ‘míngtiān yǒu kǎoshì ma?’와 같은 간단한 문장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듣고 쓰기]는 이것과 반대로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읽어주었을 때, 이것을 한어병음으로 받아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만약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면, 초급 수준은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필자는 숙달의 순서를 [① 성조 보고 말하기] → [② 성조 듣고 쓰기] → [③ 발음 보고 말하기] → [④ 발음 읽고 쓰기]의 4단계로 설정했다.

## 2) 시험의 형식과 내용

시험은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학습내용과 학습목표 그리고 시험 내용은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필자가 제시한 4가지 세분화된 학습목표는 실제 학습 내용과 일치한다. 시험의 형식은 역시 [보고 읽기]와 [듣고 쓰기]의 두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중간고사는 일반적으로 8주차(1학기 16주의 경우)에 실시된다. 매시간 약 20-30분의 성조와 발음 연습을 할 경우 7주차까지 80단어를 읽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 때문에 [듣고 쓰기]는 필기시험의 형식을 취하여 교수가 80개 단어 중에 몇 개의 단어를 불러 주고 학생들이 한어병음과 성조를 쓰게 한다. [보고 읽기]의 경우는 [실기 시험]의 형식을 취하여 80개의 단어 중 임의의 단어를 지목하고 읽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이때, 교과서에 나온 단어를 추가하여 출제해도 무방하다.

기말고사 역시 [보고 읽기]와 [듣고 쓰기]의 두 형식을 취한다. [보고 읽기]의 경우, 교과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교과서와 80개 단어를 조합한

형식을 출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간단한 ‘hē niúǎi’나 ‘qù běijīng’에서부터 ‘qù yínháng huàqián’이나 ‘zàixuéxiào xuéhànyǔ’와 같이 좀 더 긴 문장을 제시하고 바로 읽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한다. 듣고 쓰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읽어 주고 한어병음으로 쓰게 한다. 위에서 설명한 시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험형식 및 내용	보고 읽기	듣고 쓰기
성조	① 단어를 제시하고 읽기 (실기)	② 단어를 읽어주고 받아쓰기 (필기)
발음	③ 문장을 제시하고 읽기 (실기)	④ 문장을 읽고 받아쓰기 (필기)

시험 범위 : 80단어와 교과서 진도 범위 내

1학기동안 매 수업시간에 80개 단어를 반복적으로 읽고 숙달했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80개 단어를 암기하는 형식으로 시험 볼 수도 있다. 학기 중에 이미 충분히 연습했기에 암기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도 적고 암기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

### 3) 성조와 발음 연습 시기와 시간

초급자의 경우 성조와 발음의 사전 학습이 없기 때문에, 우선 성조가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연습하고 발음 연습은 교과서 수업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성조 연습시간은 대략 처음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다. 주2회 75분 수업(3학점 3시간 수업)일 경우, 발음 연습 시간은 20~30분 정도가 적당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과서 진도를 나간다. 이렇게 시간을 배분할 경우 중간고사 이후에는 발음 연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

주차	학습내용	
1주-3주	성조 연습 (정확도 연습, 속도 연습, 치환 연습 완료)	
4주-7주	발음 연습 【20분】 (정확도 연습, 속도 연습 완료, 치환 연습의 듣고 쓰기 완료)	교과서 진도 【55분】
8주 중간고사	보고 읽기 : 80개 단어 보고 읽기 듣고 쓰기 : 80개 단어 듣고 한어병음과 성조 쓰기	
9주-15주	발음연습 【20분】 (한국어→중국어 치환 연습 완료)	교과서 진도 【55분】
16주 기말고사	보고 읽기 : 간략한 문장(80개 단어 + 교재내용)을 보여주고 읽기 듣고 쓰기 : 간략한 문장(80개 단어 + 교재내용)을 들려주고 한어 병음, 성조, 뜻 쓰기	

【16주 수업 중 성조와 발음 연습 시기와 시간】

3시간(150분) 16주 수업일 경우 총 학습시간은 2400분이며, 위의 계획대로 발음 연습을 진행했을 경우 총 850분의 시간이 할애된다. 이는 전체 수업시간의 35.4%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나머지 64.6%의 시간은 교과서의 진도와 기타 초급 수준에서 요구되는 어휘 학습, 문장 구조 이해 등으로 할애할 수 있다.

#### 4) 조편성

작활동과 그룹활동은 조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편성이 매우 중요하다. 조편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각 조에서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그룹 구성원들을 이질적인 특성으로 조합해야 한다.<sup>18)</sup> 이때, 특히 기학습자와 초급자가 적절히 섞여야 한다. 교수는 조편성 이전에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조편성을 해야 한다. 그 다음은 남녀 비율, 학년, 단과대학, 재수강자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쏠림 현상이 없어야 한다. 이것을 고려하여 작성한 조편성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8) 이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업 성적, 학생의 성격, 사회계층과 종교, 원손잡이, 성(gender)이다. 정문성의 책, 117-119쪽.

1조	2조	3조	4조
박상○(남 전자4)	최민○(남 전자4)	박소○(여 국문4)	이택○(남 기계4)
이세○(남 경영1)	강구○(남 경영2)	권해○(남 기계4)	강동○(남 건축4)
유경○(여 법학4)	곽내○(여 국제3)	오현○(남 영문1)	박성○(여 경급3)
문대○(남 국문2)	유해○(남 영문2)	현오○(남 경영2)	임건○(남 사회1)
이승○(남 사회1)	김진○(남 경영2)	김제○(남 관광2)	조상○(남 경영2)
최윤○(여 영문2)	유아○(여 중문1)	장은○(여 사회1)	이한○(여 국문1)
		양제○(여 사회1)	이해○(여 사회2)

위의 도표는 총 26명을 4개조로 편성한 것이다. 짝활동은 같은 조원끼리 진행되기 때문에 조인원은 짝수로 하는 것이 좋으며 한 조의 인원은 6명이 적당하다.<sup>19)</sup> 위의 경우처럼 6명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조와 4조를 각각 7명으로 하고 짝활동을 할 때에는 3조 1명과 4조 1명을 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위의 도표에서 한명이 빠진 25명의 경우라면 1,2,3조를 6명으로 하고 4조를 7명으로 하여, 4조는 2명, 2명, 3명으로 짝을 지어 짝활동을 하도록 한다. 첫 수업을 마친 후, 교수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조편성을 하고 두 번째 수업시간에 조를 공지한다. 처음 조를 발표한 후에는 잠시 조별 시간을 갖고 조장 선발, 조원 소개 등을 한다. 한번 조가 정해지면, 한 학기 동안은 조별로 앉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수가 위의 조 편성표를 복사하여 교재에 붙여두면 학생들을 파악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또한 조별로 앉기 때문에 인원수와 결시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용이하다. 한편, 발음과 성조 학습이외에 교재를 읽거나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조 편성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5) 수업계획서 공지

앞서 언급했듯이, 수강생의 중국어 수준이 일정하지 않으면 수업목표 설정과 교과서 선택, 진도와 난이도 조정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교양 초급중국어 수업 설계에 있어

19) 일반적으로 소그룹은 2명에서 6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정문성의 책, 110쪽.

레벨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왔다.<sup>20)</sup> 앞서 언급했던 H대학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초급중국어>를 수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의 학사 행정상 기학습자 수강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수업계획서에 수업 대상과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기학습자들의 경우 교강사와의 면담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추가하여, 학습 대상의 수준이 '초급'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혹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습했으나 시간이 지나 새롭게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면담을 통해 수강을 허락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학습자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계획서의 평가 항목에 [향상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이외에도 초급 수준의 학생이 기학습자에 의해 학점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점수 배점 항목과 내용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 5. 나오며

필자는 <초급중국어> 수업에 있어서 진입장벽의 핵심이 성조와 발음임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짝활동과 그룹활동을 설계했다. <초급중국어>의 단순한 반복학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업의 단계를 [제시단계], [숙달단계], [점검 및 수정 단계]로 구분하고, [숙달단계]에 협동학습의 방법을 활용한 짝활동과 그룹활동의 수업형태를 개발하였다. 짝활동과 그룹활동의 학습 내용은 「20개의 성조 조합」과 「80개 단어표」를 근거로 「성조」→「발음」→「단어의미」→「문장」의 형태로 점차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성조와 발음 연습은 각각 「정확성 연습」, 「속도 연습」, 「치환 연습」 등으로 난이도의 층차를 두어 편성하였다. 이처럼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난이도와 단계를 조절한 이유는 흥미를 잃지 않고 반복과 숙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조와 발음을 익히도록 하기 위

20) 정진강 <대학 교양중국어 교수/학습 활성화 방안>, 277쪽. 장춘석 <교양 중국어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6쪽 참고.

함이다.

필자가 설계한 짝활동과 그룹활동은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교수 對 학생]의 수업방식에 [학생 對 학생]의 연습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를 통해 시중 교수의 지도에 집중되어 있는 시간을 학생간의 활동으로 분산하여 학습 방식의 단조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단지 교수 주도의 학습을 학생 간의 연습으로 바꾼 것만은 아니다. 기계적인 반복을 상호간의 플래시 게임, 퀴즈 형식으로 전환하고 일종의 놀이형식을 통해 흥미를 진작시키도록 고안하였다. 두 번째,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학생들이 짝활동과 그룹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교수는 각 조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로 누가 어떤 내용을 힘들어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점검과 수정] 시간에도 많은 학생을 지목하여 점검하기 때문에 각 학생의 특징과 전반적인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학생 수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수업 진도와 난이도를 조절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짝활동과 그룹활동은 학습자 상호간의 학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친숙한 수업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생 간의 활동을 통해 수준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을 이끌어주거나 틀린 부분을 수정해 줄 수 있으며 공동 목표를 위해 협동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학업 성취에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매 수업시간 조별로 앉아 짝과 그룹으로 과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는 소속감을 갖게 되고 친근함을 유지하게 된다. 학습자간의 친근감은 다시 활기찬 활동으로 연결되면서 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알면 잘 가르칠 수 있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다. 수준이 '초급'이라고 해서 교수 방법 역시 '초급'일 수 없다. '초급'일수록 보다 많은 교수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했을 때, 중국어 학습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필자가 제시한 교수법이 각 대학의 교육여건에 모두 부합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논문을 통해 좀 더 다양한 교수법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정문성, 《협동 학습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6.
- 임병빈, 《영어 교수 학습론》, 대전, 도서출판보성, 2007.
- Jack C. Richards & Theodore S. Rodgers, 전병만 외 역, 《외국어 교육 접근 방법과 교수법》, 서울, CAMBRIDGE, 2008.
- 崔永華 楊寄洲 主編, 《漢語課堂教育技巧》,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0.
- 엄익상 외, 《중국어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1.
- 중국어교육연구회, 《중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차이나하우스, 2011.
- 이혜임 편저, 《효과적인 중국어 교수법》, 성남, 북코리아, 2012.
- 김남국 편저, 《외국어교수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12.
- 김재희 《소집단 협동학습 방법을 적용한 중국어 수업모형 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년
- 김유진, 《협동학습을 활용한 고등학교 중국어1 수업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2월
- 정진강, 〈대학 교양중국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5집, 2005.
- 장춘석, 〈교양 중국어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34집, 2006.
- 정진강, 〈대학 교양중국어 교수/학습의 활성화 방안〉,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7집, 2006.
- 이옥주·정소영,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의 학습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초급중국어 교실수업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총》, 제52호, 2008.
- 이준식, 강용중, 〈의사소통기능 제고를 위한 기초중국어 교수 모델 개발〉, 《중국학연구》, 제50집, 2009.
- 정소영, 〈교수법 차이에 따른 초급중국어 학습 효과의 효율성 비교 분석〉, 《중어중문학》, 제46집, 2010.
- 김은희, 〈교양 중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 태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46집, 2010.
- 한희창, 〈교양 중국어 교과와 협동학습 활용에 관하여〉, 《중국언어연구》, 36집, 2011년, 8월.
- 신의연, 〈중, 고, 대학의 초급 중국어 교육에 관한 고찰 - 제2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육의 한계 -〉, 《인문학연구》, 제91권, 2013.

## 〈中文提要〉

本论文以非专业<初级汉语>课为对象, 探讨一些教汉语声调与发音的模式. 声调与发音教学有三个阶段, 即「展示阶段」·「练习阶段」·「修正阶段」, 笔者认为, 在「练习阶段」里可以安排分组活动(以两个为一组, 或者以几个人为一组). 这种分组活动可以符合於以沟通为主的教学模式. 分组活动是在以教授为主的上课模式当中, 加强一些学生互动的因素, 不但不使学习时间单调无味, 而且让学生具体体会到沟通的经验. 而且在分组活动时间, 教授也可以仔细观察学生的水平和学习上的问题. 在本文里面, 笔者除了说明分组活动的具体内容与方法以外, 还说明了一些分组的方法, 分组活动的时期, 上课目标以及考试方法等有关分组活动的内容. 希望笔者所提出的教学方法 被运用在实际<初级汉语>课堂上.

關鍵詞：非專業漢語課, 初級漢語, 教學方法, 聲調教學法, 發音教學法, 分組活動

이 논문은 2014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14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8월 1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